

아베 '안보법 역풍'... 지지율 37%로 급락

아사히 신문 여론조사, 민심 이반에도 처리 강행 태세

원전 재가동·아베 담화 등 '난제' 기다리는 8월이 코비

과격지사로 알려진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 8월이 고비가 될 전망이다.

심상치 않은 민심 이반 속에서도 집단 자위권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아베 정권 앞에 집단 자위권 법안 뿐 아니라 원전 재가동,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 등과 관련한 '풍파'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집권 자민당은 내각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음에도 지지 하락의 최대 원인인 집단 자위권 법안의 정기국회 회기(9월 27일 종료) 중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고부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자민당 부총재는 지난 19일 NHK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소 지지율이 내려가도 진행해온 것이 자민당의 역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찰나적인 여론에만 의존했다면 자위대(참설)도 일미안보조약 개정도 못했을 것"이라며 15~16일 여당이 중의원에서 법안을 강행처리한데 대해 "(소위에서) 속의를 했다고 판단했다"며 "마지막은 다수로 결정하는 것이 헌정의 상도"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처럼 자신만만한 아베 정권이 남아야 할 '봉우리'는 집단 자위권 법안에 대한 국민과 야당의 반대 뿐이 아니다. 우선 가고시마(鹿児島)현 센다이(川内) 원전이 내달 중 재가동할 예정이다.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의 여파로 현재 모든 원전의 가동을 중단한 상태인 일본이 약 2년 만에 '원전 시대'로 복귀하는 것이다. 근래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원전 재가동 반대 응답이 찬성보다 많이 나온 만큼 재가동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차가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 8월 1~15일 사이에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아베 담화도 다수의 예상대로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를 담지 않으면 한국, 중국과의 관계에 파장을 야기함으로써 외교면에서의 실점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총리직 연장이 걸린 9월 자민당 총재 선

거를 앞두고 아베 총리는 9월초 중국 방문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지지율 반등을 노릴 것으로 보이지만 3개의 '고봉'(집단 자위권 법안, 원전 재가동, 아베 담화)을 상처 없이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아사히신문의 여론조사에서도 아베 내각의 지지율 하락세가 확인됐다. 아사히가 지난 18~19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 하순에 실시한 직전 조사 결과보다 2% 포인트 하락한 37%.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4% 포인트 늘어난 46%로 각각 집계됐다.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아사히가 실시한 조사 중 내각 지지자 비율은 최저, 비(非) 지지자 비율은 최고를 기록했다.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반영한 안보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57%로, 찬성(29%)의 배 가까이 됐다. 연립여당이 중의원에서 사실상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한 데 대해 '좋지 않았다'는 응답이 69%에 달했다.

다만 아베 총리가 최근 '고비용 논란'이 제기된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주경기장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데 대해서는 '평가한다(긍정적으로 본다는 의미)'는 답이 74%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술 독을 깨자” 지난 19일 도쿄 도내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유홍수 주일대사(사진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 아베 아키에(安倍昭恵) 여사 등이 양국관계 발전을 기원하며 술독을 깨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 의회 '이란핵 합의 심사' 찬반 로비전 치열

미국 의회가 역사적인 이란 핵 합의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미 의원들을 상대로 한 찬반 로비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란 핵 합의를 이끌어 낸 Barack Obama 대통령과 핵 합의에 강력히 반대하는 Ben Rayburn 나터나후 이스라엘 총리가 직접 미 의회를 압박하는 것과 동시에, 양 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의회와의 접촉면을 넓히면서 로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나터나후 총리는 19일(현지시간) 미국 CBS 방송의 '페이스 더 내이션'에 출연해

"아주 나쁜 정권과의 아주 나쁜 합의"라며 "누구의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ABC 방송의 '디스위크'에 나와 다음날부터 60일간의 합의문 검토에 착수하는 미국 의회에 개인적으로 로비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세계에서 유일한 유대인 국가의 총리로서 우리의 안보와 생존, 중동과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이 협상에 반대하는 것은 나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론 더머 미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도 이란 핵협상이 타결

된 지난 14일 이후 미 의회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더머 대사는 이스라엘과 '코드'를 맞추는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의원들까지 접촉하면서 이란 핵 합의는 결코 이란의 핵무장을 막지 못하며 따라서 '역사적 기회'가 아니라 '역사적 실수'라는 점을 집요하게 설득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 쪽에선 조 바이든 부통령이 지난주 2차례 의회를 방문해 집안단속에 나선 데 이어, 이번 주부터는 협상 당사자인 존 케리 국무장관이 의회를 상대로 이

란 핵 합의 세일즈에 나선다.

케리 장관은 이날 CBS 방송에 출연해 "이번 핵 합의는 우리가 지금까지 타결한 그 어떤 핵협상보다 훨씬 더 책임감이 있는 것"이라면서 핵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전미이란핵미국인협회'(NI-AC)는 지난주 뉴욕타임스에 전면광고를 내고 "전쟁 대신 평화를 원하는 수천만 미국인들의 목소리를 사장되게 할 수는 없다"며 이란 핵합의에 대한 미 의회의 지지 및 승인을 압박했다. /연합뉴스

이스라엘 총리·대사, 美 의원 설득작업 바이든 부통령·케리 장관은 집안 단속

개 후각으로 농작물 잡초 제거한다

호주서 시험 진행중... 癌·金 찾기는 이미 활용

사람보다 1만 배나 뛰어난 개의 후각을 이용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잡초를 제거하는 시험이 호주에서 진행되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이탈리아 등에선 냄새로 각종 암을 초기에 찾아내도록 개를 훈련하는 시험이 이미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고, 스웨덴의 한 지질탐사 업체는 다이아몬드, 금 등의 광물 탐사를 개를 활용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20일 자에 따르면,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코시우스 국립공원 고산지대에서 국화과 식물인 오렌지 조팝나물을 한 포기도 남기지 않고 뿌리 뽑기 위해 코커 스파니얼 탐지견을 훈련시키고 있다. 이 식물은 그대로 두면 한순간에

무성하게 자라나 다른 식물 종들을 말라죽인다. 뉴사우스웨일스주 당국은 침입 식물들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잡초퇴치 비용이 18억호주달러(1조 52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제조제를 분무하는 방식만으론 한계가 있다. 유해 잡초가 극히 일부라도 살아남으면 금방 번성하기 때문이다. 조팝나물의 경우 꽃이 피기 전에 찾아내기 쉽지 않다.

개화하면 이미 때가 늦게 된다. '셀리'라는 이름의 탐지견이 이 대목에서 등장한다. 냄새로 조팝나물을 찾도록 훈련된 셀리는 제조제 분무 후에도 살아남은 독한 놈까지 뿌리 뽑는 데 투입된다. /연합뉴스

日 야당, '집단 자위권 법안' 위헌여부 유권해석 모색

일본에서 집단 자위권 법안의 위헌 논란이 거세진 가운데 제1야당인 민주당은 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한 유권 해석을 최고재판소(대법원)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도쿄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민주당이 구상 중인 제도 개선안은 법안의 국회 제출 이전 단계에 법안의 위헌 여부를 최고재판소에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나 내각이 요구하면 최고재판소가 위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은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

게끔 하는 방안이다.

이는 법안의 위헌 여부를 심사해온 내각 법제국이 행정부 소속이라는 한계 속에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없는 일본에서 최고재판소는 법률 등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권한을 갖는 것으로 헌법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최고재판소는 소송이 제기돼 국가 행위의 합헌성이 거론됐을 때만 위헌 법률 심사 권한을 발동해왔다. /연합뉴스

中 항공사, 제주·서울행 노선 정상화 착수

국내 메르스 사태 종식 국면에

한국 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종식국면에 접어들어 가운데 한국 항공편을 축소하거나 운항을 아예 중단했던 중국 항공사들이 정상화 작업을 본격 착수했다.

중국언론 뿐 아니라 일본언론들도 한국 내 메르스 상황이 상당히 호전됐다고 평가하고 한국여행이 생기를 되찾고 있다는 기사를 잇따라 내보내고 있다.

중국 경화시보(京華時報)는 20일 한국의 메르스 상황이 종식 단계에 이룸에 따라 다수의 중국 항공사들이 그동안 중단되거나 축소돼 운항돼온 한국행 노선을 정상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저가항공사인 춘추(春秋)항공은 지난 18일부터 하얼빈(哈爾濱)~제주도행 노선을 주 3회 늘렸다. 20일부터는 현

제 주 2회 운항되는 덴진(天津)~제주도행 노선도 4회로 늘릴 예정이다. 또 내달 1일부터는 스자좡(石家莊)~제주도행 편수를 주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상하이(上海)~제주도 노선도 전면 정상화할 계획이다. 내달 11일부터는 스자좡~서울행 노선도 매주 2회로 늘어난다. 중국 상보(商標) 역시 '원저우(溫州)시 여행사들과 접촉해본 결과, 중국인들의 한국 여행이 뚜렷한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단된 한국행 직항은 9월에 정상화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남방(南方)항공, 쓰촨(四川)항공, 동광(東方)항공 등 중국의 주요 항공사들이 줄줄이 한국행 항공노선을 점차적으로 정상화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연합뉴스

APT 담보대출

상가·주택 담보대출

감정가대비 70%

※ 신용상태등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원전용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자신만만자유예탁금 - 하루만 맡겨도 최대 1.7% 이율 적용
(금액 단계별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자산맞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1. 자동차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년 이상 2장)
2.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3. 정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1천만원 이상)
4.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5. 정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6.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초회 공제 5만원 이하 - 1장, 10만원 이하 - 2장, 10만원 이상 - 3장)
7.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과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쟁입회 후 추첨 예정)

경품안내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4등 - 족욕기(10명)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3등 - 아이패드(3명)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1.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2.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3.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외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